

“스님 기본교육은 우리 대학에서”

전국 사찰승가대학·대학원 특전 앞세워 학인모집 나서

3월 개강을 앞두고 전국 사찰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이 일제히 학인모집에 나섰다. 출가자 수 감소에 따라 학인 유지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교별로 다양한 특전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미니 승가대학은 설 연휴 전인 오는 16일 일제히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학교별로 내세운 특전을 보면 동학사승가대학(학장 보련스님)은 장학금 지급과 입학금 면제, 전학년 교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졸업여행비 및 성지순례비를 지원하고, 학인 고령화에 따라 병원비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요가, 사군자 서예 등 특화교육도 진행한다. 봉녕사승가대학(학장 도혜스님)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장학금 혜택 외에 사찰음식 강의 및 실습 이수 시 수료증을 수여하고, 다도 강의 이수 시 다도 자격증을 준다. 운문사승가대학(학장 일진스님)은 일반 하나조도대학 및 대학원, 중국 청화대 인문계열,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진학 시 특전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연수, 4학년 학기 중 호스피스 교육이 진행된다. 학비 및 장학지원 외에도 동국대병원과 MOU를 체결해 무료 종합건강검진도 시행한다. 정암사승가대학(학장 지형스님)도 장학금 지원 외에 태극권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아이패드 제공 등 입학혜택을 주고 있다.

바구니전문교육기관인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원장 일초스님)과 봉녕사 금강울학승가대학원(원장 적연스님),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및 보현울원(울주 명성스님),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원장 지형스님)도 학기 중 소정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한다.

쌍계사승가대학(학장 대각스님)은 오는 3월 28일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20일 서류심사 및 끝마를 진행한다. 전국 10여 개 사미니 승가대학 신입생 원서마감은 오는 3월까지 이어진다.

총림 율학승가대학원 학인 모집도 한창이다. 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원(원장 서봉스님)은 오는 2월 11일까지 전문과정 및 연구과정 학인 스님을 모집한다.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원장 대경스님)과 쌍계총림 율학승가대학원도 2월 11일 원서접수 후 이튿날 울원에서 면접을 시행한다. 불교전통의례를 지도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조계종 어산작법학교(교장 법안스님)도 오는 2월 23일까지 2년 과정 본과와 3년 과정 전문어산과, 재가지도 수강할 수 있는 작법과 신입학인을 모집한다. 이밖에 한문불전, 화엄, 중간유식, 초기불교, 선학 등을 전문적으로 수학하는 승가대학원도 신입 학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조계종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 2561년 중앙총무기관 사무식을 갖고 34대 집행부 핵심종책 사업들의 원만회향을 위해 매사 흔들림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재호 기자

“주인공이 되자...붓다로 살자!”

중앙총무기관 산하기관 사무식 핵심 종책사업 원만회향 다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정유년 새해(입제목)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공심으로 흔들림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34대 집행부 핵심 종책의 원만회향을 위해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불기 2561(2017)년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사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사무식은 삼귀의, 한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에게 삼배의 예를 올리는 신년하례로 문을 열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올해는 34대 집행부 임기를 마무리 하는 해이니만큼 매사에 흔들림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매년 설거하는 신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과거를 되풀이 하듯,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

안의 부족한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오랫동안 안 해오던 일,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에 참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곧 성공의 열쇠”라며 “종단 지도부와 총무원들은 한 길을 걸어가는 동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체적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사무식에 참석한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포교원장 지홍스님도 종단총종과 발전을 위해 총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항상 자각하며, 전법 교화의 역할에도 앞장서고, 매사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 결과 불교가 2위로 내려앉아 충격을 받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불교 실행형식과 내용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만큼, 실행형식 즉 ‘붓다로 살자’를 실현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성명제 조계종 총무원조합 위원장은 총무원들을 대표해 “본래 지닌 지마다의 지혜와 신심으로 우리 종단을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직할교구, 예체능 인재양성 나섰다

제1회 선재장학금 수여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불교 미래를 이끌어갈 예체능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나섰다. 직할교구는 지난 1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1회 직할교구 선재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흥연수(교동초 5, 리듬체조), 박준혁(이문초 6, 체육), 이유정(서문여고 1, 판소리), 김선화(대일광광디자인고 3, 재즈피아노), 이하운(온남고 3, 실용음악) 학생 등 5명에 각각 100만원씩 수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직할교구 소속

사찰에서 실행활동을 하고 있는 초중고등부 예체능 계열 전공자로 주지 스님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직할교구는 매년 1회의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더 많은 불교 인재양성 및 포교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의 규모와 지원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여러분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훗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체육계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학금 예산을 더 확보하고 대상자 숫자도 늘려 보다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지난 1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조계종 직할교구 선재 장학금 전달식.

서울 화계사 국제선센터 등 18곳 '우수전법도량' 선정

조계종 포교원은 화계사 등 우수 전법중심도량 18곳을 선정해 컴퓨터 등 포교물품을 지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포교원은 지난 1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 사찰 포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전체 126곳의 전법중심도량 가운데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18곳을 선정해 포

교원장 표창장과 함께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등 포교물품을 수여했다. 서울 화계사, 국제선센터, 개운사, 광림사, 행불선원, 부산 관음사, 화성 신흥사, 의왕 청계사, 남양주 동원정사, 이천 영월암, 김해 여여정사, 경주 덕송사, 창녕 통도사장년포교당, 강릉 월정사강릉포교당 등에 노트북 컴퓨터를 지원했다. 또한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과 의정부 회룡사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을, 보령 세원사와 양양 무산사에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선사하는 등 총 18곳의 우수전법중심도량에 포교 물품을 지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교육원 연수국장 무일스님 불학연구 사무국장 범우스님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에 무일스님(사진 왼쪽),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범우스님(오른쪽)이 임명됐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신입국장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연수국장 무일스님은 화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4년 통도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서 정진했고 해인사 교무국장을 역

임했다.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범우스님은 묘정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해인사에서 법전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6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겸임 및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종단 출가상담사 및 교육아사리로 활동 중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당신의 책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단 한 권의 책

저자 김창식
한학대학원 교수·주역사상연구원 원장

- 한 권으로 집대성한 주역해설서
- 시(詩)로 읽는 경전
- 지혜의 책
- 온 가족이 읽는 인생경전
- 희열이 있는 책

개정증보판

1. 중천건(重天乾) - 천시(天時)와 섭리 • 42
·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 · 티 익히라 / · 세상에서 나아가라
· 노력하라 / · 도전하라 / · 때를 만나라 / · 욕망 / · 나의 인생
5. 수천수(水天需) - 기다림의 도(道) • 109
· 기다림 / ·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 · 순결한 기다림 / · 굼뜨고
· 인내하라 / · 멋진 기다림 / · 귀인이 오다
6. 천수(天水訟) - 정치인의 도(道) • 122
· 정치인의 도(道) / · 정립하라 / · 정치권을 떠나라 / · 정치세습
· 국민이 다시 부르짖는다 / · 정치인은 타도한다 / · 권불심년(權不十年)
8. 수지비(水地比) - 경쟁의 도(道) • 147
· 경쟁 / · 끝없는 경쟁 / · 자신을 이겨라 / · 결과에 초연하라
· 당당하라 / · 상대를 배려하라 / · 경쟁의 지도자
9. 풍천소속(風天小畜) - 가정 행복의 지혜 • 158
· 가정의 행복 / · 스스로 돌아오라 / · 평계를 찾아라 / · 가정의 근본은 부부다
· 부부일심만사성(夫婦一心萬事成) / · 나눔의 행복 / · 분수
63. 수화기(水火既濟) - 가진 자의 여유 • 778
· 잃은 날의 좋은 기운 / · 첫 번째 활용용원 / · 약간의 훼손 / · 큰일의 도모
· 기(既濟)의 삶 / · 상생의 삶 / · 정신을 잃다
64. 화수미제(水火未濟) - 모험과 투쟁 • 799
· 끝없는 도전의 시작 / · 부끄러운 달성 / · 아름다운 도전
· 자신의 일을 찾아라 / · 왕권의 모험 / · 복귀는 군자(君子) / · 믿음



800쪽 | 값 40,000원



사주(四柱) 속에 숨겨진 길흉화복(凶禍福)의 비밀
당신의 성공을 보장할 속 시원한 명리학 풀이!

오봉환 저음 | 456쪽 | 값 29,000원 **명리철학**

스님들이 불자에게 가장 많이 선물하는 책

저자 황태호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한 반야심경 근심, 걱정에서 해탈하는 기적의 108가지 가르침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성공을 불러오는 불교 경전 시리즈

- 금강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 | 이광복 저음 |
- 천수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 | 이광복 저음 |
- 법구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 | 김현진 저음 |
- 아함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 | 김희서 저음 |
- 화엄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 | 김용필 저음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수행, 명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를 깨우는 명상 | 김연수 저음 | 328쪽 | 값 13,000원



좋은 사주는 하늘의 복이요, 좋은 이름은 사람의 복이다!
IBS 교육방송 디지털 평생교육원 (개운사주) 강의 교재

최종학 저음 | 296쪽 | 값 19,000원 **개운사주**



304쪽 | 값 10,000원

당신도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다!

1999년부터 700여 권 출간!
각종 문학상과 우수도서 선정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남긴다는 것은 인생의 길목에서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책은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가지 여건(문단의 등단, 나이, 경력, 전국 서점 전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전술 속에 숨겨진 전주를 찾는 마음으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 기획 단계부터의 협의, 전국 서점 유통과 판매, 언론의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및 온라인 광고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출간 대상 원고》
문학·자기계발·인문교양·자서전 여행·인물평전·학습·칼럼 등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원고·메스컴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원고)

칭어는 따뜻한 마음으로 명품 책을 만듭니다

칭어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45-8
대표 02-688-0477 | E-mail pp20@hanmail.net
www.chungeobook.com